

# 중원지역 인물·성씨 연구현황과 과제

이 해 준\*

## 목 차

1. 인물·성씨세력과 지역사
2. 중원지역의 연구 성과와 동향
3. 인물·성씨연구의 방향과 대상

### 1. 인물·성씨세력과 지역사

대체로 지방세력의 존재는 각 시기별로 위상과 성격이 다르지만, 그 실체를 밝히는 일은 지역사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관심대상이다.<sup>1)</sup> 혹자는 지역사에서 조차 결국 중앙중심의 역사가 대상했던 양반같은 지배세력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문제라고 할지 모르지만, 사실 전근대사회에 있어서 지역의 역사는 이같은 지배세력의 거취와 사회적 성격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고, 그것이 조선시기 후반기까지도 지역적 분위기와 정서를 크게 좌우하였던 것이 사실이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그 까닭은 수긍이 될 것이다.

본고에서 대상하고자하는 조선시기는 그 사회성격을 흔히 ‘양반관료제’라거나, ‘사족지배체제’로 지칭하여 왔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지배계층을 이루는 양반, 혹은 사족들은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하여 왔을까? 또 그들은 어떠한 지배구조와 운영원리 속에서 향촌사회 지배세력으로 존속할 수 있었을까? 나아가 과연 그들의 지위와 역할은 조선시기 전 기간동안, 혹은 모든 지역이 동일하였던가 아니면 그렇지 않았던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관심이 바로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다.<sup>2)</sup>

---

\* 공주대학교 교수

1) 필자는 이 발표에서 다른 주제 발표자들과 같이 구체적인 지역자료를 가지고 글을 준비하지 못하였다. 현지조사와 관련자료의 동원에 있어서 시간적 제약을 극복할 능력과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의 연구 방법이나 시각, 자료원에 대한 논의도 앞으로의 연구진전에는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조선시기의 사회구조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지역의 지배세력으로서 사족의 지위와 성격문제는 매우 중요시 되어왔다. 그리하여 향촌사회사연구는 지금까지 사족들이 실제적으로 활동했던 무대인 향촌사회에서 지위와 성격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또 지배방식과 구조는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좀더 구체적으로 연구주제들을 보면 조선시기의 사족지배체제가 ①과연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확립되었고, ②그들의 향촌운영질서는 어떠한 운영원리를 지니고 있었으며, 또한 ③사회변화과정에서 이것들은 어떻게 변형되었는지에 집중되고 있다.<sup>3)</sup>

70년대 사회경제사의 한 부분연구로서 시작된 사회사 연구는 70년대 후반부터 향촌사회사라는 새로운 분야사로서 영역을 확보할 수 있었고,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주로 사족들의 향촌운영 방식이었던 향약이나 유향소, 향안, 향규, 서원같은 사족주도의 사회조직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였다. 그러다가 80년대 후반이후에는 조선시기의 총체적인 사회구조를 사회사적인 시각에서 재정리하려는 방법론의 모색과정에서 사족들의 분열과 한계, 국가지배력의 통제와 반향, 피지배 하층민의 존재형태 등에까지 관심영역을 더욱 확대하였다. 이제 향촌사회연구는 광범한 지역자료의 정리, 발굴을 통한 지역사의 정리차원 및 향촌단위 지배세력으로서 사족의 활동과 그 반향에 대한 구조적인 이해로 진전될 전망이다.<sup>4)</sup>

이러한 지역세력의 실체를 구조적으로 밝히기 위하여는 해당지역의 자료 수집과 정

2) 필자의 이 분야에 관련된 글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참조될 것이다.

- ① 1991 「조선시대 지방사자료의 수집과 정리」(국사편찬위 사료조사위원회 특강)
- ② 1991 『생활문화와 옛문서(책임편저)』 국립민속박물관
- ③ 1992 『향토사연구의 이론과 실제(공저)』(향토문화진흥원)
- ④ 1992 「지방사연구에 있어서 고문서자료의 활용」 『정신문화연구』 46(정신문화연구원)
- ⑤ 1993 『조선시기 사회사연구법(공저)』(한국정신문화연구원)
- ⑥ 1995 「역사기록과 생활문화자료」(『향토사의 길잡이』, 전국향토사협의회, 수서원).

3) 이에따라 이 분야 연구는 사회신분제 연구나 경제사, 나아가 피지배신분층의 저항, 변혁운동에 관련된 연구들과도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최근에는 연구 범위를 더욱 넓혀, 신흥세력외에 피지배 촌락농민의 조직과 의식에 대한 연구로도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이 분야연구는 일제 식민사학의 당파성론이나 성리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시작된 성리학과 사족에 대한 관심과 병행되어 진전되었다. 즉 해방 이후 한국사연구의 큰 흐름에서 볼 때 이 분야 연구는 변동과 해체의 대상이 되는 중세 봉건적인 사회구조의 성격과 변질모습을 규명하는 작업과 동일 궤도상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이태진외, 1993 『한국사회발전사론』 일조각).

4) 이해준, 1995 「사족과 향촌사회」 『한국사학연구입문』, 한국역사연구회. 여기서는 ①사족의 지방세력화 과정, ②향촌지배기구와 조직 ③향촌 세 세력간의 상호 관계로 나누어 개관하였다.

리 노력이 수반되어야 했다. 사실 현전하는 자료로는 역사유적 중에서 조선시기 이전의 이들 지역 지배세력의 성격을 반영하는 자료는 대부분 사건에 관련된 것이거나 지리지 기록, 단편유적들이 전부이다. 고려시대의 경우 구체적인 지방세력의 실체가 토착세력의 본관 설정이나, 불교세력과의 연관, 『고려사지리지』에 보이는 土姓, 續姓, 來姓, 亡姓의 존재로서 어느 정도 복원 가능하다. 그런가하면 『지리지』에 科擧, 名宦, 忠孝, 寓居地, 塚墓로 구분되어 나타나는 인물자료들도 지표로서 활용되었다. 그리고 군현편제와 함께 鄉, 所, 部曲, 任內의 모습도 지역세력의 위상을 검토하는 자료로서 유용하다.

그러나 이같은 개괄적이면서 영세했던 성씨와 인물자료는 조선시대에 들어오면 매우 구체적이고, 자료도 풍부하다. 수많은 기록문서의 작성주체가 되는 이들은 시기별로 그 위상과 성향을 달리하면서 각종 지리지류에 기록되고 있다. 조선초의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와 조선후기의 사정을 보여주는 『여지도서』, 그리고 조선말기의 여러 읍지들은 그러한 변화를 반영한 자료들인 것이다. 그런가 하면 향교에 소장된 유생안이나 재임안, 서원 유생안, 그리고 특별히 鄉案이 보존된 경우라든가 사마방목이나 문과방목을 통한 과거급제자의 파악도 이러한 지배세력의 성격변화를 파악하는 주요 근거가 된다. 즉 이를 통하여 우리는 지역단위의 개괄적인 성씨세력의 변동내용을 추적할 수 있으며, 과거 및 인물조 기록 수의 비교, 성씨별 배출인물의 추이를 통계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문집과 기타 저술자료, 고문서와 금석문자료 등등 조선시기 인물·성씨 연구에서 필수적인 자료들과 함께 지역사 자료로서 현지에서 추가할 수 있는 보다 생생한 자료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추이가 증가되고 있다. 유적의 경우도 기왕에 이루어진 것과 같은 문화재적 가치 중심의 파악보다는, 그들이 사회세력으로서 기능하는 역동적인 모습을 추적하는 연구가 진전되고 있다. 예컨대 정자, 재실·서사·정사, 학당·서당, 사당, 영당, 정려, 종가, 서원, 사우, 부조묘, 신도비가 건립되었다면, 그 주동·후견인물은 누구인가? 그것이 가능했던 사회경제배경은 어떤 것인가? 왜 그 시기에 그것이 이루어지는가? 또 그 성격과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등등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단순한 건립의 년대는 물론 이어지는 중수, 보수, 이권에 대하여도 시기와 배경, 후원세력을 밝힐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하나 이러한 성씨세력의 변화를 반영하는 중요한 자료가 바로 선조 선양활동 및 동족 관련사항이다. 물론 이 부면은 사료의 사회사적인 검증작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객관화시킬 수 있는 해당지역의 비교 자료가 많이 수집되어야 한다. 그럼

에도 서원예의 추배제향이나 증직, 시호, 문집간행, 족보간행, 문중조직(화수계, 족계, 문중계, 사초계), 재실(제각), 선형마련, 동족마을 형성(이거시기, 혼인·사우관계, 계파의 분기), 배출인물의 추이 등등을 통하여 대략적인 성씨세력의 성격은 유추가 가능하다.

한편 특별한 인물의 경우 대체적으로 그의 이력과 사상에 대한 연구는 후손이나 기존의 향토사연구자들에 의하여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들과 관련되는 고문서나 금석문, 문집자료들은 비단 각 개인에 대한 연구의 차원과 함께 인물과 관련된 지역적인 사건이나 당시 현실상황을 그대로 반영하는 귀중한 지역사자료가 된다.

## 2. 중원지역의 연구 성과와 동향

이상에서 필자는 지역사와 관련시켜 인물·성씨세력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 동향을 간략히 살펴 보았다. 그러면 중원지역의 이 분야 연구는 과연 어떠한지를 간략히 살펴 보기로 하겠다. 물론 향토사연구자들의 연구성과들은 필자가 철저히 파악하지 못한 것이 많아서 불완전한 평가가 될 것이고 따라서 다소 주저되는 바도 없지 않으나, 총체적으로 평하였을 때 지적되는 문제점은 첫째 특정인물 중심의 연구 경향, 둘째 예론과 충절 인맥 위주의 연구, 셋째 자료활용과 시각의 불투명이라고 할 수 있다.

충청지역은 주지하는 바처럼 우리나라 예론의 정통 학맥이 줄기를 이룬 곳이고,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양반 사족들의 사회적인 지위가 보장되었던 곳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이같은 사정은 당연히 사족들의 확고한 지배구조와 지배력이 다양한 형태로 존속하였음을 말하는 부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까닭으로 인물연구가 적지는 않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주로저명한 특정 몇 인물에 집중된 현상이 돋보이고, 연구내용상에서는 예학과 충절, 의병 인물, 아니면 문중사의 측면에서 거론되어야할 선조 추송활동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이들 연구는 주로 경학, 철학, 문학, 서지학 분야에서 이루어져 역사부면의 구체적인 연구는 거의 진전된 바가 없다.

인물과 성씨 연구에서 제기되는 첫 번째의 문제는 인물과 성씨의 선정에 관한 것이다. 대체로 조선시기 중원지역 인물·성씨 연구의 대상들은 현재의 대성 집단이거나 특출한 역사적 공적을 가진 인물, 혹은 문중선조인 경우가 많다. 한마디로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이점은 우선 인물선정의 기준이 당색이나 학맥에서 편향적이거나, 할

동 내용구분에서도 예학이나 충절인물에 집중되는 경향이 바로 그것이다. 아마도 중원지역에서 그같은 주류 학맥이 형성되고 인물들이 집중되었다면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지역 성향일 것이다. 따라서 각개 인물도 인물이지만, 그렇게 된 연유나 배경, 학술사적 계보 등이 역사속에서 함께 혹은 먼저 논의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경향성을 추적한 연구는 별로 보이지 않고 있다.

예컨대 의병활동과 관련된 인물일 경우 전후 좌우로 연계되는 의병사의 체계속에서 우선 순위나 역할 비중에 따라 각개 인물이 연구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지역과 성씨의 임기응변적인 필요와 조건에 의하여 단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결국 그러한 연구가 축적되기는 하였지만, 지역사의 전체 구도와는 별반 연계가 되지 않은채 개인 공적 중심의 인물사로 그치고 마는 것이다.

이같은 경향이 일반화된다는 물론 자료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예학이나 경학, 문학작품에 주목한 인물연구, 특정 서지학 자료와 관련하여 진전된 연구물이 많은 것이 바로 그러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지역사와 관련된 인물과 성씨 집단의 연구가 올바르게 진전되기 위하여는 각 시기와 시기별 특정 활동, 활동의 주제별로 세분하여 여기에 인물과 성씨세력의 동향을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조선시기의 지역사회에서 주도적이었던 성씨와 인물들은 대체로 ①초기에는 <개국공신-향리-사림>의 상관관계, ②중기에는 <세족(토성)-사족>의 관계로 보다 구체적 유적과 자료를 남긴다. 성리학적 소양의 보급과정과 그 역할, 향약과 소학·사창문제, 향안·향규·유향소와 관련되는 지역세력의 결집과 갈등문제, 의병활동 양상, 그리고 당파와 학맥문제 등은 바로 그 구체적 근거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③후기에 이르면 <新鄉-舊鄉>의 문제, 동족마을과 문중활동의 양상으로 나누어지며, 이 시기에는 각 당파나 학연과 관련되는 문중의 서원·사우 건립활동, 선조의 추숭과 포상활동이 활발해 진다. ④끝으로 조선 말기에는 의병과 항일운동에 관련되는 성씨 인물들이 주목되면서 보수적 경향의 성씨집단과 개화적 성향의 신 지식인 집단으로 대별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충주와 청주지역은 유향소문제와 관련하여 토착성씨 집단과 이거 사족, 그리고 수령간의 문제가 첨예하게 드러났던 지역이고 그런 문제와 관련되면서 郡號의昇降이 전국 중에서도 가장 높았던 곳으로 지적되는 곳이다. 그런가하면 왜란 중에도 충주의 의병활동이나 청주의 의병활동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 구체적인 실상이 역사적 맥락에서 정리되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조선후기의 지방 당쟁과 관련하여 영조조의 무신란(1718년)에 청주가 주요 거점으로 선택되고 있었던 점도 주목

할 연구 대상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러한 문제들은 이후 서원·사우 건립활동이나 당파적 이해집단 간의 분기 현상으로 구체적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조선시기의 인물과 성씨연구가 매우 단편적이고, 문중선조 추앙의 형태로 진행되는 경향도 문제가 된다. 대체로 향토사연구자나 문중활동에서 보여지는 이러한 연구들은 기초 자료의 정리라는 측면에서는 일정 성과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자료의 재해석이나 검증작업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연구 성과라고 하기는 어렵다. 부연하면 이같은 인물사 연구가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중원지역의 역사적 상황과 실체에 대한 접근과 고려가 미진하였던 셈이다. 그러한 자료들이 제 가치를 인정받고, 특히 지역사의 골격으로 흡수되기 위하여는 사회사적인 자료 보충과 비교, 검증, 재해석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결국 총괄하여 이야기 한다면 인물 및 성씨연구가 사회사적 고려를 거의 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그러한 연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 오갑균, 1977 「영조조 무신란에 대하여」, 『역사교육』 21, 역사교육연구회
- 성주탁, 1980 「청천 사창좌목해제」, 『호서사학』 8·9합, 호서사학회
- 김진봉, 1982 「임진란중 호서지방의 의병활동과 지방사민의 동태에 관한 연구」 『사학연구』 34, 한국사학회
- 최재우, 1984 「조선후기 호서 향약자료의 성격에 대한 일고찰」 『호서문화연구』 4, 충북대 호서문화연구소
- 송인협, 1987 「옥천의 삼계, 삼양서원 연구」 충남대 석사학위논문
- 김준석, 1987 「조선후기 기호사림의 朱子인식」, 『백제연구』 18집, 충남대 백제연구소
- 김준석, 1988 「17세기 기호주자학의 동향」, 『손보기박사정년기념한국사논총』
- 이정우, 1989 「조선후기 옥천지방의 사족과 향권의 추이」 『호서사학』 17, 호서사학회
- 전용우, 1990 「화양서원과 만동묘에 대한 일연구」 『호서사학』 18, 호서사학회

같은 연구가 사회사적 관점에서 보면 주목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연구 정도는 타 지역과 비교하여 매우 부진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최근 타 지역에서 진전되고 있는 향촌동향과 관련되는 연구들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이 분야의 연구는 70년대와 80년대초반 주로 자료발굴과 정리로 본격화되어 괄목할 정도에 이르고 있으나, 중원지역의 경우 서원과 사우, 기호사림의 학맥과

특성, 향권의 추이, 향규와 향안, 향약, 읍지 등 고문서 자료의 분석연구는 지역적 특성을 보여줄 주요 연구 대상이라는 점에 착안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필자가 분석한 1989-1993년 사이 5년간의 조선후기 연구성과를 기준으로 하면 이 분야 연구의 양은 총 7편으로 경상도 지역 21편, 전라도 지역 15편에 비하여 매우 적다.<sup>5)</sup> 그리하여 실제 우리 학계에서 충청지역의 지역사례가 인용·언급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향촌사회의 구조와 성격을 보여주는 이들 자료와 연구들은 우리가 관심과 시각을 좁게 가지고 자료를 대하기 때문에 정리되지 않고 있으며,<sup>6)</sup> 그것을 통하여 지역민이 주체가 되는 “올바른 지역사”도 되찾게 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 3. 인물·성씨연구의 방향과 대상

대체로 지역사에서 성씨 집단과 인물이 역사적 의미를 가지게 되는 여러 부면에서 추적이 가능할 것이다. 즉 단순한 구도로는 개인적 역량과 공적도 그중의 하나일 것이지만, 지역사와 점목시켜서 이를 이해하려 할 경우 우리는 몇가지 관점과 방향을 가지고 인물·성씨자료를 주목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 (1) 해당지역 각 성씨의 입향과 이후 변천의 문제이다.

입향의 문제는 대개 중시조나 입향조로 지칭되는 인물의 행적과 관련된다. 누가, 언제, 무슨 이유로 그 지역에 터전을 마련하였는가? 그리고 그 과정은 어떠했으며 관련된 성씨집단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가? 등이 그러한 문제와 관련된다.

이 문제는 토착지배집단과 새롭게 이거해온 성씨집단들이 어떠한 필요에 의하여 연대하고, 그 과정속에서 지배력을 성숙시켜 갔느냐의 문제와 직결된다. 대개 조선초기나 조선전기에 새롭게 이주해온 성씨와 고려이래로 토착했던 성씨와의 연대와 갈등관계가 이들 문제와 관련되는데, 대체로 군현단위의 행정편제는 조선초에 범위가 확정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500여 년간 그 행정범위를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고려시

---

5) 이해준, 1994, 「조선후기 사회사연구의 성과와 전망」 『한국사론』 24집, 국사편찬위원회. 충북의 경우 금년에 고문서와 전적조사의 일환으로 전 향교와 서원이 조사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며, 이를 통한 연구의 진전이 기대된다.

6) 이해준·김인걸, 1993 『조선시기 사회사연구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참조.

대에는 독립적인 행정편제를 지닌 여러 군현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따라서 이들이 하나의 행정체제로 묶여지는 조선초에는 이들 독자적인 역사문화적 배경과 기반을 지녔던 군현의 주도세력간에 적지 않은 타협과 갈등의 과정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즉 새로운 왕조의 개국과 함께 부원세력의 퇴조와 신흥사대부의 등장, 군현편제의 변화와 이에따른 지방세력의 재편, 그리고 사족과 향리가문의 분기와 지방사회에 있어서의 우위권 경쟁이 시작된 시기였으며, 이에따라 지방세력의 변동과 재편도 이루어졌다고 보여지는 것이다. 대체로 이러한 지역사정은 국가의 지방지배 강화와 관련하여 국가 시설의 설치, 그리고 사족적인 분위기를 반영하는 배출인물의 활동을 통해서 단편적인 사실들이 추적된다. 대개 조선전기의 지방지배세력은 고려이래의 토착향리 세력인 土姓吏族과 新興土族, 또는 移居士族의 존재로서 확인이 되는데 예컨대 이 시기의 성씨세력을 살필 수 있는 자료로는 『世宗實錄地理誌』(1454년)와 『新增東國輿地勝覽』(1481~1530년)이 있다(姓氏條, 名宦·人物條). 이중 토성으로 기록된 경우는 대체로 고려시대 이래의 토착세력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속성은 향리, 망성은 없어진 성씨, 래성은 이주 등을 통하여 새롭게 생겨난 성씨들이다. 물론 이들 자료들은 조선초에 편찬된 기록이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麗末鮮初의 이같은 사정을 대강은 유추할 수가 있다. 이러한 토성의 존재와 변화는 려말선초 지역별 성씨세력의 실체를 가늠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2) 지역사의 입장에서 각 성씨(인물)세력의 성장과정을 주목하는 일이다.

대개 각 성씨(인물)의 성장과정은 소학의 보급이나 향약활동, 서재를 통한 후학 양성같은 사림활동이나, 국난기에 의병참여 등으로 묘사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거의가 인물의 관력과 연계되면서 조선건국에 반대한 두문동 계열이나 세조찬탈, 기묘사화 등으로 불우한 처지에서 은거한 절의계 인맥으로 정리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구체적인 그 인물들의 행적과 역사성 문제이다. 대개 구전이거나 유서로서 알려지는 이들 사적이 정확히 복원되지 못하면 지역사와는 별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그러한 행적과 활동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해당 시기의 해당 지역의 비슷한 인맥들이 함께 정리되어야 한다. 과거급제자의 파악, 유향소를 비롯한 사림들의 활동양상들은 바로 그러한 과정에서 검색이 필요하다. 이 작업은 과거에는 지리지의 기록과 특정인의 문집자료만을 활용하는 수준이었으나, 다행

히 최근에는 조선왕조실록의 CD나, 사마방목의 CD가 나와서 검색이 매우 용이해졌다.

이같은 지역적 분위기나 상호 비교자료의 검색과 동시에 각 성씨세력간의 연대 모습도 사림활동의 사회적 기반으로 주목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동족마을의 연구도 이와 별개가 아니다. 동족마을의 형성과 변천사를 정리할 때 그 마을에 정착한 성씨 집단의 入村 과정에서 어떠한 배경과 이유로 해당마을에 정착하였는지, 또 그 성씨 집단이 기존의 성씨집단과 어떠한 관계속에서 성장하게 되었는지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이같은 입향사적의 추적에서 주목할 부분은 묘소의 위치와 처음 잡은 집터의 위치, 선주성씨의 존재와 그들과의 관련성이다. 대개 경우는 입촌의 동기는 처가나 외가, 혹은 그 이전의 특별한 인연이 있었으며 이는 입향조의 父나 祖, 혹은 子의 혼인관계를 통하여 관련성이 추적되는 것이 보통이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또하나 주목할 부분은 활동내용이나 관련 유적의 년대별 정리이다. 인물 및 성씨와 관련된 비석이나 서재, 서원, 사우, 기념물, 묘소같은 것도 몇차례의 중수나 보수, 이권 등의 과정을 겪게 마련이다. 특히 각 성씨별로 이들 과정을 정밀하게 년표식으로 정리하고, 여기에 관련되는 고문서자료나 주도인물, 참여인원, 경제적 재원마련의 방법과 내용들이 추적된다면 우리는 더많은 인물과 성씨관련 자료를 추가하게 될 것이다.

### (3) 인물·성씨와 관련된 사회적 활동에 대한 관심이다(\*지역사 복원의 문제).

각 인물과 성씨집단이 향촌사회에서 기득권과 존재의미를 부각시키는 활동들은 매우 다양하게 전개된다. 흔히 그것들을 혹평하여 우리는 문중활동이라고 한다. 그러나 주체를 문중으로 놓고 보면 매우 부정적일 수도 있으나, 그것을 역사적 현실로서 놓고 보면 매우 커다란 의미와 내용을 함축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파악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자료활용을 못한 측면도 있다.

예컨대 서원·사우를 예로 들어 보자. 서원과 사우는 조선후기 향촌사회 질서변화에서 사족들이 종래 누려왔던 향촌지배권에 대한 광범한 도전을 수용하고 대응한 양상을 구명하는 데 있어 다른 어떤 자료보다 비중있는 연구대상이다. 書院과 祠宇 건립의 목적과 건립주체의 성격, 건립과 사액의 과정은 향촌사회에서 각 성씨집단이 어떤 사회적기반을 지니면서 기능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다시말하면 서원·사우는 결국 조선후기의 각 지역사족들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해당지역의 향촌

사회의 지배질서 재편과 鄉權문제를 집약적이고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은 다시 향촌사회의 주도권을 둘러싼 단순한 사족들간의 문제(문족간 주도권경쟁)이나 아니면 보다 광범한 문제, 즉 수령권이나 중앙정치세력과의 문제와 관련되느냐로 구분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시각에서는 門中基盤의 성장과정과 그 운영 조직의 측면으로 나누어 살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같은 서원 사주의 역사적인 성격이 보다 면밀하게 검토되기 위하여는 향촌사회에서 이들 각 서원들이 어떠한 위상으로 존재하고 있는지가 구체적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예컨대 書院·祠宇에 제향된 인물의 성격(지위)은 관념상 서원조직의 다른 어느 것보다 우선하며,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당연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인물이 어느 시기에 어떠한 필요에 의하여 제향되고 있는지가 더욱 중요하다. 한 인물의 학문이나 사회적 지위와 함께 이를 선양·추앙하는 세력이 있었을 때 서원·사우는 건립된다. 다시말하면 제향인물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제향하는 서원이 왜, 그 시기에, 어떤 세력에 의하여 건립되었는지를 밝혀야 하는 것이다. 이를 파악하기 위하여서는 해당세력의 제향인물 선양(재조명, 포장 등)의 준비과정이나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해당세력의 실체와 변모를 추적하여야 한다.

한편 건립의 시기가 주목되어야 하는 이유는 같은 조선후기라 하더라도 書院·祠宇가 제 기능을 하던 시기와 남설현상으로 인해 그 기능과 성격이 변질되던 시기의 서원·사우는 구별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엄밀히 말할 때 서원·사우는 16-17세기 사족지배질서의 확립과 관련하여 이해될 수 있는 역사적 산물이다. 성리학적 지배질서가 정착되고 사족들의 公論(鄉論)에 의해 지역사회가 운영되던 16-17세기의 상황은 앞에서 지적된 바처럼 왜란이후 점차 변질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지역사회에서 사족들이 차지하는 비중의 감소로 설명될 수 있는데, 남설기의 서원·사우는 실상 그러한 과정의 산물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물론 16세기나 17세기 초에 창건된 서원·사우들이나 조선후기 인물을 원래의 의미에 따라 제향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이같은 이해가 모두 타당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예들을 예외로 할 경우 서원의 건립은 지역사회에서의 사족간 분열현상과도 연결되고 있다고 보아 무리가 아니다.

한 지방에서의 여러 서원·사우는 사족들의 결집매체로서도 기능하지만, 그밖에 사족간(성씨간)의 대립·경쟁이나, 수령에 의한 견제·이간으로 자체결속력을 잃을 가능성도 많았고, 또 실제로 그러한 현상은 많이 보여진다. 더욱이 17세기 중엽이후 문중적인 기반이 점차 강해지면서 18세기 후반-말기 경에 이르면 門中中心의 경쟁적 성격

을 강하게 지니게 된다. 아마도 우리가 오늘날 보게되는 서원·사우의 권위(지위)경쟁은 이같은 변질기의 모습이 재현된 것으로 보아 무리가 아닐 것이다.

서원 사우의 건립주체세력도 대부분 鄉内の 유림 혹은 道儒로 나타나고 있지만 내용상 이들은 재분류될 수 있는 것으로, 鄉中公論으로 창건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주동세력이 학통, 성씨, 당색, 혹은 이들 세력의 연대에 의한 것 등등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원·사우의 건립주체세력을 분석하면 왜 그들이 그 시기에 그 지역에 서원·사우를 만들지 않으면 안되었는지의 이유와, 건립될 수 있었던 배경도 설명이 가능하다.

한편 대개는 서원의 성격을 단순히 건립단계에 한정하여 이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서원의 건립이후 변화과정은 이러한 주체세력의 변화, 그들이 향촌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직접 관계되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최초 건립시기보다도 주목될 부분이다. 특히 적당하게 처리되는 추배제향과 추배시기의 문제는 매우 주요한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각 서원과 사우는 제향인물을 主壁과 配享, 連壁 혹은 并享의 형태로 구분하여 그 位次를 대단히 중요시하고 있다. 이들 배향이나 병향인물들은 主壁으로 정해진 인물과 學緣·地緣·血緣·黨色 등 일정한 연고를 갖고 있게 마련이다. 또 이같은 과정은 대부분 연대하는 세력(향촌사회 내부, 혹은 중앙정치세력)을 가지면서 진행된다. 부연하면 이같은 과정이 향촌사회 자체의 구조상에서 설명되는 경우와 중앙의 정치세력과 연계되면서 추진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고, 중앙세력과의 연계도 그 주체나 적극성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중앙세력이 자파의 세력을 부식하기 위하여 집중적인 지원을 하여 건설되는 경우나, 향촌사회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겨냥하고 적극적으로 중앙세력과 연계시키는 경우, 혹은 이 두가지가 적절하게 일치되는 경우들이 그것이다.

(4) 인물과 성씨집단의 모습이 어우러진 동족마을의 연구문제이다.

촌락은 우리의 전통적 생활공동체의 최소단위이면서, 그중 동족마을의 경우는 인물과 성씨집단의 기능과 역할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소 우주라 할 수 있다.

성씨와 인물과 관련되어 형성 전개되는 동족마을의 역사는 16세기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독과 제방 저수지개발 등으로 농경지역이 평야저지대로 확산되면서, 그리고 이를 주도하는 재지사족들의 위상강화를 배경으로 하면서, 각각 특수한 문화상들을 종합적 결과물로써 간직하고 있다. 여기에 덧붙혀 동족마을은 친족조직인 중계(문중

계)같은 자료를 통한 문중기반의 확대과정, 예컨대 선산과 묘소의 마련, 재각(제실)건립, 비석건립, 족계의 운영같은 자료들이나, 마을전체적인 경지확대(보나 제언, 제방, 저수지의 축조)의 시기, 주동인물, 과정 등을 잘 간직하고 있다.

조선후기 일반화의 추이를 보여주던 동족마을의 문중활동의 여러 양상을 보면, 그 기초는 역시 ① 가문지위를 현양할 구체적인 顯祖의 존재, ② 문중활동이 이루어지는 시기의 사회분위기와 주도인물의 역량(향촌활동·정치력·연속성)이 있어야 가능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진 경우라도 ③ 이를 가능하게 하는 인적 조직적 경제적인 기반이 없으면 이는 불가능하였으며, 그런 의미에서 최근까지도 계속되는 문중활동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째 顯祖의 행적이나 유적을 중심으로 문중활동을 전개하는 경로로는 ① 행적재평가(추승·정려·신원·추증), ② 유적의 현창(유허비·신도비·행장·누정·재실·정사·영당), ③ 향촌사회 및 국가인정(서원·사우건립), ④ 문중권위의 홍보(파보·족보·문집=世稿·實記 간행)로 연결된다. 이 과정에서 각 시기별 주도인물의 활동범위나 지위, 동족의 경제력, 인적 조직력이 주요 인자가 된다.

둘째 시기별 향촌사회구조의 변화와 경쟁적 문중활동과 연계되는 경로로는 모두 일률적인 것은 아니나 대체적으로 ① 15~16세기 : 내외친족(족계·내외보), 사족결사체(향약계·동계·누정), ② 16~17세기 : 부계친족 족계(동계·문중계), 종가·선형·재실·서당, ③ 17~19세기 : 족보(파보)·정려·서원(사우)·문집, ④ 18~19세기 : 대동보·世稿·實記刊行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향촌단위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문중활동의 궁극적인 귀착점으로 주목되는 서원(사우)의 건립활동도 이와 연관하여 주목할 수 있는데, 문중중심의 서원·사우건립과정은 시기별로 볼 때, 16~17세기초반에는 국가적 도학자나 충절인의 제향이 일반화되어 문중은 영당이나 사당(재실)을 건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17세기 후반~18세기 후반에는 서원보다 사우건립이 증가, 문중적 인물의 제향이 증가되어 결국 서원남설의 주 요인이 된다. 이 시기에 문중결속력이 미약한 2~3개의 가문이 합력하여 서원 사우를 건립하거나, 遠祖(始祖·中始祖)를 추배 제향하는 경향도 엿보인다. 18세기 후반~19세기 이후는 문중별, 혹은 파별로 서원·사우가 분립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제향인도 다수가 추배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셋째 동족의 인적, 조직적인 기반을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문중활동도 있다. 초기 동족적인 결속력이나 향촌사회에서의 지위가 강고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결사체적 사족계나 내외친이 망라되는 족계를 마련하였다가 동족마을로 성장하면서 동성동족적인 족계(화수계·문중계)를 마련, 동족적 기반을 강화한다. 그리하여 선형수호를 위한 규약

이나 경제적 기반으로 노비·전답·산림을 마련하고 재실·종가·문중서당같은 관련기구를 마련하기도 하고, 그들의 축적된 권위와 기반을 향촌사회에 투영시키는 활동 예컨대 동족연대 및 선조현창을 위한 족보(파보)·행장·비석건립, 나아가 정려 포장이나 서원·사우 건립활동을 벌여나가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었다.

바로 이같은 동족마을의 조사와 정리도 인물·성씨집단의 연구와 결코 별개가 아니다.

이상의 예에서 보듯이 인물과 성씨집단의 연구를 통하여 지역사와 접목시킬 작업과 자료들은 수없이 많다. 특정인물과 성씨에 국한하지 않고 지역사의 입장에서 이들 자료를 다시 볼 수만 있다면 지역사의 올바른 정리와 그 과정에서 인물과 성씨집단에 대한 연구는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시급한 대상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이같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다양한 종류의 고문서 자료들이 섭렵된다면 지역사회의 다양다종의 모습들도 대부분은 복원이 가능할 것이다.